

하와이안 밥테일 오징어의 투명망토

천운영

작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고단함이 따라온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을 생각하면 어쩐지 먹먹한 기분이 드는데, 고단함에도 치열함까지 덧붙이면 나도 모르게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이 떠오른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일, 기어이 살아남는 일.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들만 펼쳐지던 사바나의 풍경. 어릴 적에 참 좋아했다. 가제와 사자, 병든 사자와 하이에나, 하이에나와 늑대, 물고 물리는 그 냉혹하고 엄중한 세계를 재미있어했다. 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재밌었다. 흥미롭고 짜릿했다. 왕국이라니. 재미라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흥미로운 장면에 대한 재미가 아니라, 장엄함에 대한 경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왕좌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뭐 이리 고단한가 싶은 기분이 들 때면, 나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본다.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 다시 질문을 바꿔본다.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러다보면 갑자기 마음의 환해진다.

그렇지, 우리는 모두 세균의 자손들이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지. 먹고 먹히며 가까스로 존재했던 고세균들이 갑자기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잡아먹은 먹이를 소화시키는 대신 몸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었을 때. 그 소화되지 않은 먹잇감이 그 안에서 세포가 되고 기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마쳤다. 이끼로 장구벌레로 소나무로 오징어로 코끼리로 인간으로.

먹고 먹히는 대신, 품고 손잡고 한 몸이 되어가는, 가장 오래된 언어. 공생.

45억년전부터 시작된 지구 생명체들의 진화의 역사를 알아가는 일은, 색색의 종이꽃이 휘날리는 퍼레이드

에 참가한 것과도 같다. 종이꽃에는 우주의 비밀이 쓰여 있다. 하나에 하나씩. 나는 그 한 장을 낚아채 비밀 하나를 획득한다.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 퍼레이드 색종이는 우주의 별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리고, 나는 그 중에 극히 일부, 단 몇 개의 종이만을 손에 짚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비밀을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별 몇 개의 비밀을 품었으니 그 얼마나 짜릿한 일인가. 먹고사는 일이 고단하다 싶을 때 나는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한다. 비밀 하나를 엿보기 위해. 짜릿하게 아름다워지기 위해.

오늘의 색종이에는 오징어가 살아가는 법이라 적혀 있다. 대왕오징어도 아니고 다 커봐야 엄지손톱만큼 작은, 하와이안 밥 테일 오징어. 그 조그만 오징어에게 삶의 기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기에.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포식자를 따돌리기 위해 어떻게 먹물을 만들고 어떻게 피부색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은 지구상에 가장 작은 오징어가 먹고사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들 언어에 관한 이야기.

이 지구에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오래된 언어. 공생에 관한 이야기.

22번째 SpaceX 화물보급선이 발사되었다. 보급선에는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이, 인간들 손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진 것이다. 그 애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왔을 때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주공간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작동될까? 바로 그것이 당신네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종족에게 궁금해 하는 점이다.

보급선에 실린 또 다른 종족. 타르디그레이드(Tardigrades). ‘천천히 걷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걸음이 꿈을 닮았다 하여 물곰water bear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인간들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주실험에서 살아 돌아온 이력이 있다. 그들은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영하 20도에서 30년 이상을 버텨오며, 물이나 공기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했고, 방사선이나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도 죽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날 거대운석이 지구와 충돌해 여섯 번째 지구대멸망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전의 다섯 번의 대멸망extinction event에서도 살아남은 종족이니까. 그들은 죽어서 사는 법을 안다.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멈추었다가 때가 되면 재개하는, 생과 사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법을 모른다. 대신 숨는 법을 안다.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다. 몸이 작기 때문이다. 친척들 중에서도 특히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 종족은 수많은 해양생

물의 한입거리, 만만한 먹잇감이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대부분 포식자를 피해 모래무지 속에서 숨어서 지낸다. 모래무지를 파고든 다음 두 팔로 모래알갱이를 끌어와 완전히 덮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점액질을 이용해 모래알갱이를 몸에 붙일 수도 있다.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의 위장전략은 정교하게 진화해 왔다. 물곰의 생사조절 스위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에도 스위치가 있다.

밤이 되면 우리도 은신처에서 나와 사냥을 나간다. 밤이라고 해서 포식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먹이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서 먹잇감을 찾는 방법. 투명망토를 두르는 것이다. 밤이 오면, 수면에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일렁이면, 우리 몸에도 별이 뜨고 달이 뜬다. 달빛과 별빛으로 빛난다. 보름달과 초승달에 따라, 날이 맑고 흐림에 따라, 정교하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줄도 안다. 우리의 자체발광시스템은 아름답게 정교하다. 달빛과 별빛으로 일렁이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빛나면서 사라지고, 빛으로 그림자를 지우는, 자체발광 투명망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가 아니듯, 그 별빛들이 물살에 부서지듯. 저마다 별빛 하나를 품은 우리 종족들이 모여 우주를 만든다. 반짝, 반짝, 일렁, 일렁. 그리고 우리가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종족의 힘이 필요하다. 비브리오 피세리Vibrio fischeri와의 협업. 공생.

상상해보라, 당신 신체 안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다. 선택받은 종만 출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의, 정족수를 채워야 가동이 되는 일종에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다. 회원들은 아주 예민한 편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하룻밤 잘 놀다 가길 원한다. 출입구에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리 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공간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등도 켜두어야 한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한다. 딱 적당한 수의 피세리들이 클럽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스위치가 켜진다. 스타라이트 스위치.

우리 몸 안에서 피세리들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적응하고 반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 없이 신호를 보내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박테리아와의 이 화학적 대화는 아주 오래된, 생명의 기본적인 언어체계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세균의 자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구시스템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신호를 읽고 받아들여 새로운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우리 몸속에는 박테리아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상호교신하고 협동하는 범지구적 유전자 교

환 네트워크. 이 공생적 연합은 영구적인 것이다.

다시 상상해보라, 당신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을, 세포들을, 물질들을. 물질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우주의 탄생 때부터 존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협력하는 수많은 유기체들로. 서로 다른 수많은 존재들로, 얽히고설켜 맥박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형성 수준의 현상이다. 우리는 피세리들 없이는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 피세리들은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피세리들은 발광의 파티를 끝내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다시 수면에서 해저로 내려가 모래무지 속에 숨는다. 다시 해가 지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아 모여들어 발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주로 날아간 우리 아이들. 그 애들은 지금 별을 보고 있을까? 우주에서의 별빛은 지구 바다에 떨어지는 별빛과 다를까? 그 빛을 보며 느낄 수 있을까? 선조들이 밤마다 별이 되어 빛나던 순간들을? 그 애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와 다시 지구 바다를 유영하는 날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신호를? 물론이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니까.

<끝>